

보도일시 | 2025년 6월 5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장생포문화창고 신규 미디어아트 전시

'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' 개최

- 화폭 위에 담아낸 조선의 미학, 빛으로 피어나다 -



▲ <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> 미디어아트 전시 중 신윤복 작품

울산 남구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장생포문화창고((재)고래문화재단 운영)가 오는 6월 6일부터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미디어아트 전시 <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>를 선보인다.

장생포문화창고 3층 미디어아트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럽 인상파 화가인 모네, 세잔, 고갱의 작품을 주제로 한 시리즈 전시를 통해 서양 회화의 색채와 빛을 소개하며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.

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-art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, 조선 후기 3대 화가인 **정선**, **김홍도**, **신윤복**의 대표작들을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하여 고전 회화에 담긴 시대의 정서와 미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색다른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.

전시는 △산수의 결 △생동의 결 △풍류의 결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.

정선의 산수화를 통해 웅장하고 장엄한 조선의 자연미를,

김홍도의 풍속화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서민들의 일상과 활기를,

신윤복의 인물화에서는 섬세한 감정과 풍류의 맛을 미디어아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.

화면 속에서 물결처럼 움직이는 산수, 웃음소리가 들리는 풍속 장면,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까지 이번 전시는 빛과 영상, 사운드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.

(재)고래문화재단 이사장(서동욱 남구청장)은 "조선의 그림 속 감성을 빛과 소리를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한 이번 특별 전시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장생포문화창고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"고 밝혔다.

<조선의 결, 빛의 화폭에 담기다> 미디어아트 전시는 6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생포문화창

고 3층 전시장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장생포문화창고 공식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. (문의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☎226-0015)

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6. 4.
